



영양만점 오리

환절기 원기보충, 오리



아침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에 '부모님 보약 한첩 지어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지는 요즘. 이 음식 하나만 잘 먹어도 올 겨울 보약이 따로 필요 없다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보양식으로 극찬한 오리 되겠다! 옛말에 '오리고기는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앗아 먹어라'고 했을 만큼 허한 몸을 보하고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대표적인 보양식품. 이에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부담 없이 즐기는 오리 요리부터, 겨울을 건강하게 나는 오리 건강법까지~ 원기보충! 영양 만점! 오리와 함께 올 겨울 가뿐하게 이겨보자!



【김태욱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생방송투데이에 김태욱입니다.

【윤현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윤현진입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김주희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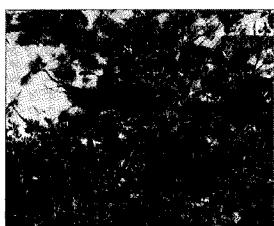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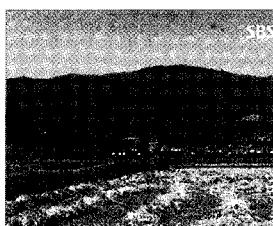
【김주희 아나운서】 겨울철 만 되면 날이 추워서 인지 괜히 몸이 으슬으슬해지고 또 기운이 없어진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음식을 먹으면 허한 기운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장육부를 다스려준다는 오리고기를 맛

있게 먹는 방법 함께 보시죠.



어느새 가을도 다가고 겨울문턱에 들어선 11월 첫째 날, 경기도 보천 한 야산에 의문의 남자가 나타났다. 신출기몰 산을 뛰어 올라가는 한 남성.



【등산객 1】 옷을 보면 민소매 하나만 입고요 추위도 안 타는 거 같아요.

【등산객 2】 산에 오면 자주 만납니다.



저기 위에 올라가 보세요.



저기 위에 올라가 보세요.



마음이 사는 분이라도 있으세요?



다른 분들은 알고 싶어질 저만을 위한
건강식은 항상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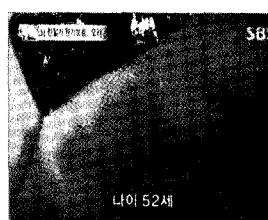
게다가 이 추운 날에 민
소매 티셔츠 차림. 운동
하는 모습은 견전지 cf를
연상시키는데! 이남자의
정체가 궁금하다.

【리포터】 이렇게 쌀쌀한 날

씨에 안추우세요?

【이은개 씨】 네 춥진 않고
열이 납니다.

50을 훌쩍 넘은 나이에



나이 52세

도 펄펄 넘치는 기운을
주체할 수 없다는 삼 남
매의 아빠

일명 포천의 건강남! 도
대체 그의 건강비결은
뭘까?

【이은개 씨】 규칙적인운동
과 식습관 이 두가지만 병
행하면 한겨울에도 이렇게
땀이 납니다.



경기도의 건강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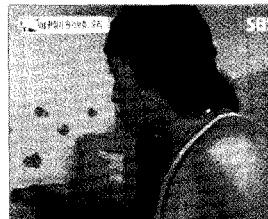
건강남은 운동과 식습관 이 두 가지만 병행하면
한겨울에도 이렇게 (땀이 납니다)

따로 드시는 보약이라도 있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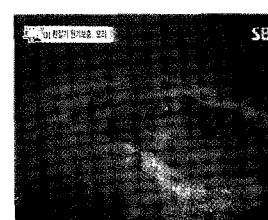
다른 보약은 없고 집사람이 저만을 위한 건강식을 항
상해줍니다.



【이은개 씨】 여보 나왔어~ 얼른 밥줘!



아내의 사랑이 들어간 보
양식은 바로 이것!
환절기에는 몸에 더욱 좋
다는 오리백숙!
예로부터 오리라 하면 남



의 입에 들어간 것도 훔
쳐 먹으라 할 정도로 최
고의 보양식으로 손꼽혀
왔는데!



여기에 인삼 황기 등 10
여가지의 한약재를 넣고 푹 끓여낸 이것이 매일 꾸준
한운동과 함께 은개씨가 즐겨먹는 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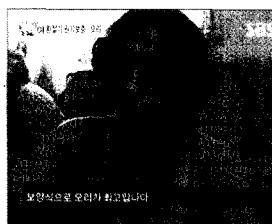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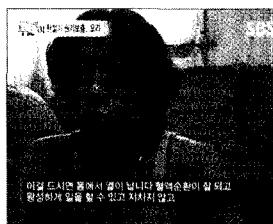
【이은개 씨】 자이거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국물도 먹고요.

아니 닭다리 들고 뜯는 사람은 수없이 봤지만
오리를 통째로 들고 뜯는 사람은 최초공개!

【이은개 씨】 오리를 드시면 몸에서 열이 납니다. 혈액순환
이 잘되고 활성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보양식으
로 오리가 최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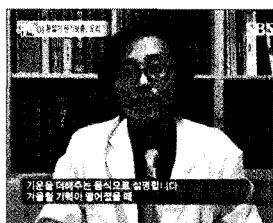
이걸 드시면 몸에서 열이 납니다 혈액순환이 잘되고
활성화해 일을 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보양식으로 오리가 최고입니다



【리포터】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 몸에 허한 분들에게
좋다고!

【오철 한의사】 오리는 한의
학에서 보증익기 즉 소화기



오 철 한의사

오리는 한의학에서 보증익기
즉 소화기를 이용하여 보호하면서

기운을 더해주는 음식으로 설명합니다.
기운을 기력이 떨어졌을 때

오리를 통해서 기력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를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기운을 더해주는 음식으로 설명합
니다. 겨울철 기력이 떨어졌을 때 오리를 통해서 기력을 보
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운

기운을 더해주는 음식으로 설명합니다.
기운을 기력이 떨어졌을 때

오리를 통해서 기력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오리를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데!

【손님 1】 어머~ 꽃같이 이쁘다. 가을 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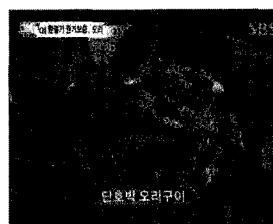
【손님 2】 진짜 노란 들국화가 확 피어 있는 것 같아.



【리포터】 오리요리에 웬 들
국화? 도대체 어떤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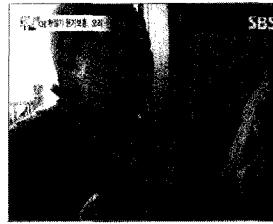
시선집중!

정작 이것은 호박과 오리
가 만난 단호박 오리구



단호박 오리구이

이! 일단 한 송이 노란 꽃이 핀것처럼 시선을 잡아 끄
는데 성공!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손님 1】 음맛있다~



무 쌈에 돌돌 말아 먹어
도 좋고!

【손님 3】 일단 담백하고요,
느끼한 게 없으니까 좋아
요.



[손님 2] 기름기 많은 음식
보다는 성인병에도 좋잖아요.
몸보신에는 역시 오리
가최고네요.

담백함과 쫄깃함을 위해

먼저 기름기를 쑥 빼고!



열두 가지 한약재를 푹 달여서 오리를 24시간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영례 오리전문식당 주
인】 국내산 유황오리입니다!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신
토불이 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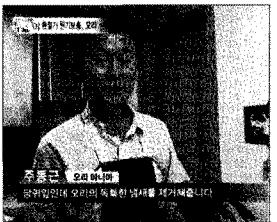
일차로 기름기를 쑥 뺀 오리를 단 호박에 넣어 다시 한
번 구워줘야하는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호박을 황토 그릇에 넣
어 다시 450도에서 한시간정도 구워줘야 한는 것~!!
그리면 오리와 호박의 환상적인 만남!

호박의 달콤한 즙이 오리고기에 스며들어 부드러운
감칠맛을 낸다는 호박 오리구이 완성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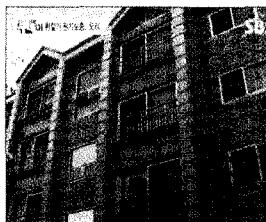
오리에 부족한 비타민과 섬유질이 단호박을 만나 하





나가 되었으니 100이면 100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

【손님 4】 야~ 맛있겠다.



오리로 간편하게 아이들의 건강을 쟁기는 가정이 있다는데?



【오선희 주부】 안녕하세요.어서오세요.

【리포터】 오리요리 해준다고 찾아 왔는데

【오선희 주부】 네, 오리요리 지금 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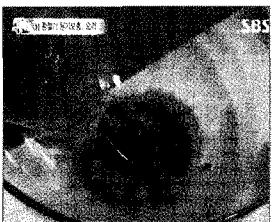


오늘은 특별히 아빠가
나섰다!
설사 요리에 서툴러도
국내산 오리요리는 누구
나 쉽고 맛있게 조리할
수 있다고!

【주동근 오리마니아】 양귀잎인데 이것이 오리의 독특한 냄

새를 제거해줍니다.

고추장에 간장을 넣고 고추 생강 양파는 맵지 않게 믹서에 넣고 갈아 주는데~ 하지만, 색깔이 영~ 이거 불안하다.



【주동근 오리마니아】 한번 맛봐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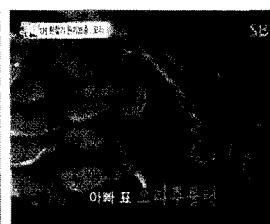
【오선희 주부】 맛은 있어~ 진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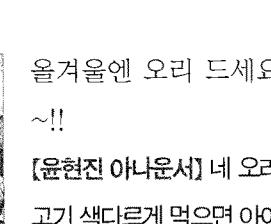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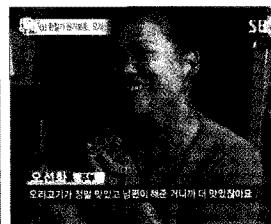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채소까지 넣고 음식 맛은 손맛이라 조물력 조물력 해주면 국내산 오리를 이용한 아빠표 오리 주물럭 완성!



소고기와 달리 자주 자주 뒤집어줘야 연하고 맛있는 오리고기가 된다!
지글지글~ 아우~ 애간 장 타들어가네요~



아빠표 오리주물럭은 맵지 않아서 아이들이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데~
하지만 제일 신난건 어머니네요!
【오선희 주부】 오리고기 정말 맛있고 남편이 해준 거니까 더 맛있잖아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맘 때 누구에게나 좋은



울겨울엔 오리 드세요 ~!!
【윤현진 아나운서】 네 오리 고기 색다르게 먹으면 아이들도 많이 즐겨 먹을 것 같아요.
【김태욱 아나운서】 생방송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